"무분별 공개수배 말라" 인권위 권고 무시

10만원 강도 용의자 얼굴 공개

서부경찰, 전단지 뿌리고 보상금 내걸어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법무부에 '공개수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경찰이 '소액 편의점 강도 사건' 용의자까지 '공개' 수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이 명시한 공개수배와 이번 편의점 강도 용의자 공개가 성격이 달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용의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인권위가 '법률 근거 마련'을 권고한 공개수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경찰, 인권위 권고 무시=경찰이 최근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소액 편의점 강도' 용의자를 사건 발생 단 하루 만에 일반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20일 새벽 3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20)을 모형 권총으로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용의자를 21일 '공개'수배했다.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선명하게 찍힌 용의자의 모습을 담은 수배 전단지 1000여장을 배포하고, 신고 보상금 50만~200만원까지 내걸었다.

시민 김모(50·광산구 우산동)씨는 "용의자를 공개하기 전에 사안의 경중을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스스로 용의자를 검거하려는 경찰의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개수배나 마찬가지인 용의자 '공개'=경찰은 이번 편의점 강도 사건에 대한 용의자 공개는 경찰청이 명시하고 있는 '공개수배'와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은 용의자를 지명수배 또는 통보한 뒤 6개월이 지나거나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공개수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경찰청 선정위원회 또는 지방경찰청장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이번 공개는 용의자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공개수배가 아니어서 인권위 권고 사항에서도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청이 명시한 공개수배와 이번 공개가 다른 것은 맞지만, 상당 부분의 성격이 비슷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권위, 무분별 공개수배에 제동=인권위는 지난 6월 "현행 공개수배 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법무부장관에 관련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이 최근 소액 사건에 대해 용의자의 사진 등 인적사항을 일반에 공개하면서 그의 가족들까지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권위의 권고조치는 무분별한 공개수배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인권위는 지난 3월 24일 경찰이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강도 용의자를 공개수배한 사례를 들어 남용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야생동물 먹이 주기 광주 북구청 직원들과 자연보호 북구협의회 회원 50여명은 22일 광주시 북구 삼각동 상월산에서 야생동물들의 겨울 나기를 돕기 위해 고구마와 배추 등 먹이를 뿌려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불법 체류 외국인 모집

전국 돌며 돈벌이 노동

서해해경 해남서 7명 검거

외국인 구인광고를 통해 불법 체류자 등을 모집한 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배추 수확작업을 해온 외국인과 내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2일 중국인 한족 W(여·46)씨·우즈베키스탄인 T(39)씨 등 불법 체류자 6명과 이들을 고용한 최모(51)씨 등 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께 해남군 삼산면의 한 배추밭에서 자신이 고용한 중국인 W씨 등 불법 체류자 6명과 배추 수확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 7월 초부터 고랭지와 월동배추 작업을 할 목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 안목동 일대에 '배추작업 할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구인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과 팀을 꾸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등은 지난 7월 중순부터 강원도 태백시의 한 배추밭에서 작업을 마친 뒤 이달 초 해남군 삼산면으로 이동해 작업하던 중 잠복 경찰에 검거됐다.

해경은 이들이 단순 불법체류자로 확인됨에 따라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해 강제퇴거 조치하는 한편, 최근 체류 외국인의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밀입국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관할지역에 불법체류자 및 알선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30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모두 120만8544명이며 이 중 불법 체류자는 17만4049명으로 14.4%에 이른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금호타이어 임금 지연 5억 배상"

광주지법 판결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유동성 위기로 직원들의 임금을 일시 체불한 금호타이어에 대해 5억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2일 금호타이어 직원 146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 측은 원고들에게 5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배상액은 호봉에 따라 1인당 14만5000~74만3000원 등으로, 1인당 평균 38만5000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호타이어는 뒤늦게 지급한 원고들의 임금에 대해 지급해야 할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금호타이어 직원들은 지난해 말께 유동성 위기로 금호그룹에 대한 워크아웃 결정이 내려진 뒤 지난해 12월 급여, 올해 1~3월 급여 및 상여금 등이 3~8개월 가량 늦게 지급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허위 사실 유포 도의원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창호)는 22일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김모(56)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이 청 장성군수 후보 측에 대해 "공무원이 경로당 운영비를 유용하고, 특정 사업에 군비를 낭비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고물로 착각 인형뽑기 기계 싣고 가

쌍나팔

○…인형 뽑기기계를 고물로 착각해 차량에 싣고 간 50대 남성이 목격자의 제보로 경찰서행.

○…22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3)씨는 전날 오전 9시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이모(38·인형뽑기 기계 수리업)씨의 주차장에 놓여져 있던 80만원 상당의 인형 뽑기 기계 1대를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갔다는 것.

○…김씨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씨의 차량 번호를 메모해 둔 목격자를 찾아내는 바람에 이날 오후 8시께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기계가 주차장에 놓여있고, 낡아서 버린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대학교수 헬스클럽서 돌연사

심장질환 고3 스쿼시하다 숨지기도

추운 날씨에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잇따라 숨져 겨울철 무리한 운동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밤 9시30분께 목포시 모 스포츠센터에서 스쿼시를 하던 이모(18·고3) 군이 갑자기 쓰러져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심장질환이 있던 이군은 수능을 마치고 건강관리를 하려고 이 스포츠센터에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6시 55분께에는 광주시 동구 모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던 광주 모 대학 교수 김모(61) 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김씨는 40분간 러닝 운동을 하고서 근력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헬스클럽 관계자는 말했다. 김씨는 최근 수년간 고혈압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 헬스클럽에서 아침마다 운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심장질환과 고혈압·당뇨병·비만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기온 변화나 무리한 운동시 혈관 수축으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갈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전문의들은 겨울철에는 충분한 스트레칭과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는 운동법을 택해야 하며, 심뇌혈관 환자는 추운 날씨에는 운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동네 아동 성범죄자 우편으로 알려준다

내년부터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은 거주 지역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 안내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제공하는 '우편고지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가정에 거주지 읍·면·동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의 성명·나이·주소·사진 등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안내해 어린이나 청소년 부모들이 일부러 인터넷 정보를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을 덜게 된다. /연합뉴스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김영편입학원
www.kimyou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개강 1월 3일